

2026 포럼 비프 섹션 및 세션 소개

장소 |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섹션 A 극장가의 두 풍경: 사라지는 중예산 영화,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침체된 극장가에서 교차하는 중예산 영화의 쇠퇴와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약진이라는 상반된 두 흐름을 짚으며, 국제 공동제작과 새로운 시장 형성 속에서 한국영화가 찾을 수 있는 활로를 논의한다.

세션 1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도약,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세션 2 사라진 허리, 중예산 영화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

섹션 B AI 이후의 시네마: 영화는 누가 만드는가

생성형 AI가 영화 제작 전반에 확산되는 시대에 기술이 제작 환경과 매체에 가져온 변화를 살피고, 창작의 주체로서 예술가와 인간의 자리, 그리고 창조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다.

* 세션 1 개최지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세션 1 AI 영화의 미래: AI와 예술가는 공존할 수 있는가

세션 2 AI 시대의 새로운 창조성: 인간의 자리를 묻다

공동주최 : 동서대학교

섹션 C 한국영화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작자의 권리와 공공지원

영화인의 권리와 영화제 공공지원이라는 두 축을 나란히 조명하며, 공정한 계약과 보상 등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와 영화제의 공공적 역할에 부합하는 지원체계의 방향을 살펴본다.

세션 1 모두가 계속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와 지속가능성

주최 : 영화인연대

세션 2 새로운 영화정책 환경에서 영화제 지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주최 :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진흥위원회

섹션 D 영화도시 부산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거버넌스와 친환경 전환

현장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역영화 거버넌스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갈래 과제를 중심으로, 영화도시 부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한다.

세션 1 지역영화의 새로운 거버넌스: 현장과 행정,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주최 : 부산영화정책네트워크

세션 2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 전환과 탄소 절감 전략

공동주최 :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2026 포럼 비프

개최일자 2026.10.8(목) ~ 10.11(일)

개최장소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주최 (사)부산국제영화제

공동주최 동서대학교,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오시는 길

영상산업센터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하차 (12번, 6번 출구), 도보 8분
버스 신세계백화점 하차, 도보 8분
일반 : 5-1, 39, 40, 63, 115, 139, 141, 155, 181, 307
좌석·급행 : 1001, 1002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하차 (4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시청자미디어센터·KNN방송국 하차, 도보 1분
일반 : 115, 181, 307
마을 : 해운대구3-1, 해운대구3-2

섹션 B : 세션 1
개최지



Forum BIFF 2026

2026
포럼 비프

동시대 영화의
가능성을 말한다

10.8.-11.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CONTEMPORARY CINEMA

섹션 A

극장가의 두 풍경: 사라지는 중예산 영화, 떠오르는 애니메이션

섹션 B

AI 이후의 시네마: 영화는 누가 만드는가

섹션 C

한국영화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작자의 권리와 공공지원

섹션 D

영화도시 부산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거버넌스와 친환경 전환

FORUM BIFF

2026 포럼 비프 일정표

장소 |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 * 모든 섹션에는 AI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 '섹션 B : 세션 1 - AI 영화의 미래: AI와 예술가는 공존할 수 있는가'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그 외 모든 섹션은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됩니다.

10/8 (목)	
13:00 - 15:00	섹션 A 세션 1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도약,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사회 : 이우빈(씨네21) 발제 : 시노미야 요시토시(감독), 데이지 앤 두(홍콩과학기술대), 조경훈(스튜디오애니멀) 토론 : 성상민(문화평론가), 스나미 카즈키(코믹스 웹이브 필름) 토론 : 성상민(문화평론가), 스나미 카즈키(코믹스 웹이브 필름)
16:30 - 19:00	섹션 B 세션 2 AI 시대의 새로운 창조성: 인간의 자리를 묻다 사회 : 최원호(동서대) 발제 : 야코 수오미넨(투르크대), 런창전(영화감독), 모리모토 유키(규슈대), 김민정(아이토니아) 토론 : 이우영(동서대), 저우이쥔(봉황 TV) 공동주최 : 동서대학교
10/9 (금)	
12:30 - 15:00	섹션 C 세션 1 모두가 계속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창작의 권리와 지속가능성 사회 : 민용근(한국영화감독조합) 발제 : 윤단비(한국영화감독조합), 박해영(한국방송작가협회), 벤자민 응(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정철(한국예술경영학회) 토론 : 김병인(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박관수(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박재현(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윤하(영화진흥위원회), 장형윤(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주최 : 영화인연대
16:30 - 19:00	기조발제 김종관(영화감독) 섹션 A 세션 2 사라진 허리, 중예산 영화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 사회 : 김성훈(씨네21) 발제 : 안영진(영화사진), 이화배(이화배컴퍼니), 안병래(고집스튜디오) 토론 : 송효정(블루파이어스튜디오), 이현정(쇼박스), 임선애(영화감독)

10/10 (토)	
12:00 - 14:00	기조발제 장석류(국립인천대) 섹션 D 세션 1 지역영화의 새로운 거버넌스: 현장과 행정,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사회 : 김이석(동의대) 발제 : 하장호(문화연대),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토론 : 성송이(부산영화정책네트워크), 이승진(영화의전당), 정성욱(동의대) 주최 : 부산영화정책네트워크
16:30 - 19:00	기조발제 지아장커(영화감독) 섹션 B 세션 1 AI 영화의 미래: AI와 예술가는 공존할 수 있는가 사회 : 김무규(국립부경대) 발제 : 리웨이(애니메이션 감독), 예를란 누르무함메토프(영화감독), 손용호(스튜디오 티나), 민규동(한국영화감독조합), 유형준(퍼미에) 토론 : 전병원(동의대), 전예린(스튜디오로렌), 전창배(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조지훈(무주산골영화제), 홍진욱(영화감독)
10/11 (일)	
13:00 - 15:00	기조발제 김조광수(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섹션 C 세션 2 새로운 영화정책 환경에서 영화제 지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사회 : 김조광수(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토론 : 김형석(부산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송은지(정동진독립영화제), 이용선(영화진흥위원회), 허욱(용인대) 주최 :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진흥위원회
16:30 - 19:00	기조발제 맷 스카프(영국 영화·방송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섹션 D 세션 2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 전환과 탄소 절감 전략 사회 : 김용희(선문대) 발제 : 캐서린 내시(더 보틀 아트 스튜디오), 김용희(선문대) 토론 : 김영진(로케트필름), 양종곤(前부산영상위원회) 공동주최 :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2026 포럼 비프

포럼 비프는 영화를 둘러싼 산업과 창작, 정책과 기술의 변화를 함께 살피며 영화인·연구자·관객이 새로운 질문과 관점을 나누는 담론의 장입니다. 올해는 '동시대 영화의 가능성을 말하다'라는 큰 주제 아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영화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사라지는 중예산 영화와 부상하는 아시아 애니메이션을 통해 산업의 재편을 들여다보는 한편, 생성형 AI 시대의 창조성과 영화적 표현, 창작자의 권리와 영화제 공공지원, 지역 영화정책과 친환경 전환까지 논의를 확장해 동시대 영화가 마주한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짚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동서대학교,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부산영화정책네트워크, 영화인연대, 영화제정책모임 및 영화진흥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서로 다른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한자리에 모아 산업과 창작, 제도와 지역을 가로지르는 연결점을 찾고, 지금의 영화가 맞닥뜨린 과제를 돌아보며 앞으로 열어갈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석영화연구소

故 김지석 부집행위원장의 뜻을 이어 2018년 설립된 지석영화연구소는 아시아 영화에 대한 연구와 학술 교류, 교육을 바탕으로 영화의 현재를 기록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 방향과 비전을 연구하며, 국내외 영화인과 연구자, 기관 간 교류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지난해 재개된 전문 학술행사 '포럼 비프'를 이어가며, 빠르게 변화하는 영화산업과 창작 환경 속에서 동시대 영화가 마주한 주요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예산 영화와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변화부터 생성형 AI와 창조성, 창작자의 권리와 영화제 정책, 지역 영화정책과 친환경 전환에 이르기까지 산업·창작·기술·제도·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오늘의 영화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한국과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forum.biff.kr/kor



@forumbiff



f forumbiff